

## 9장. 부부관계

가족은 사회의 핵심적 구성단위이며 부부는 가족의 중심이다.



# 1. 결혼의 의미

---

- 결혼은 성숙된 사랑의 증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녀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결혼은 사랑에 책임감을 부여하여 사랑을 성숙시킨다.
- 결혼은 가족을 형성하고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수단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가족을 이루게 되고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전통과 관습을 유지할 수 있다.
- 결혼은 사회규범에 따른 기대를 충족시켜 가족구조를 유지하는 방법  
우리 사회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기에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규범이 있으며 부모는 자녀에게 이러한 규범을 기대하는데 자녀는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한다.



## 2. 시대에 따른 결혼에 대한 관점의 변화

- 결혼을 보는 사회적 규범이 달라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결혼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고 있다.

### 1) 배우자 선택의 조건과 결정권 변화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개인의 취향과 의사가 반영되고 결혼 당사자가 결혼을 결정함

### 2) 초혼 연령과 독신 가구의 증가

교육기간의 연장, 결혼생활에 대한 심리, 경제적 부담, 여성의 자아실현 동기 등으로 인해 초혼 연령과 독신이 증가함

### 3) 평균 자녀수의 감소

초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여성의 출산력 약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자녀보다 부부의 행복추구 경향, 노후생황에 대한 대비, 피임법의 발전 등으로 자녀수가 감소함

### 4) 자녀 양육방식의 변화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가사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게 됨

### 5) 이혼율의 증가

이혼이 금기 시 되지 않고, 부부간의 적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혼율이 크게 증가함

### 3. 배우자의 선택

#### 1) 선택의 기준

데이트 상대와 결혼상대는 다를 수 있는데 가령, 데이트 상대로는 분위기를 잘 주도하고 유머 있는 사람이 좋겠지만 결혼상대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원할 수 있다.

성별이나 상황에 따라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는 근접성, 유사성 같은 상황적 요인, 성격과 신체적 매력 같은 개인적 요인 등이 고려된다.



#### 2) 선택의 과정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자기가 선호하는 특성이 점점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표적 모형에는 여과망 모형과 자극-가치-역할 모형이 있다.

**여과망 모형(Udry, 1971):** 선택 초기에는 근접성, 신체적 매력, 사회적 배경(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등)의 유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기에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의 유사성이나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상호보완성 같은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후기에는 결혼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역할

## 여과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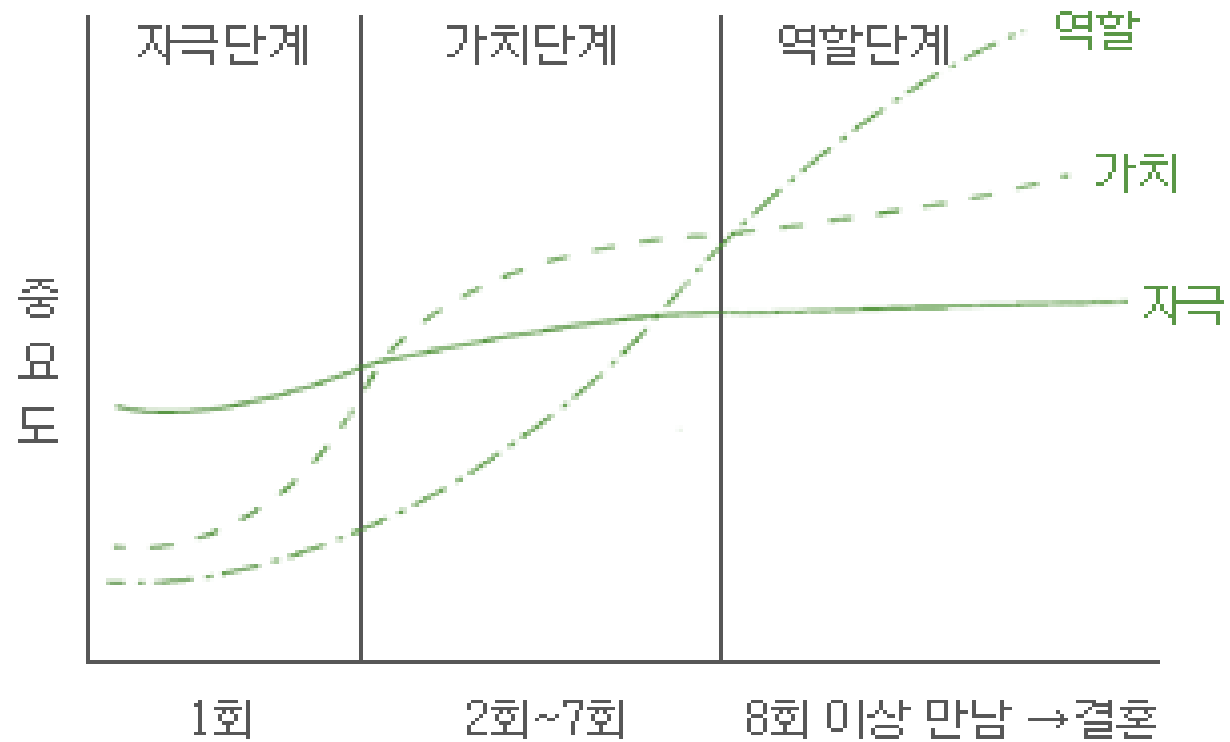


**자극-가치-역할 모형(Stimulus-Value-Role theory; Murstein, 1986):**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사회교환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사람을 선택한다.

- A. **자극단계** - 외모, 사회성, 지적 능력 같은 상대방의 특성에 근거하여 매력을 판단한다.
- B. **가치단계** -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자신과 어울리는지를 판단한다.
- C. **역할단계** - 남편(경제적 능력 등) 또는 아내(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자질)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평가한다.

어떤 사람은 가치단계에서 배우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만날수록 자극이나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하고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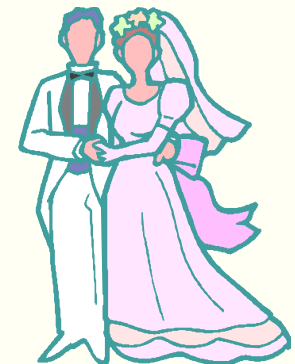
## 자극-가치-역할 모형



## 4. 성공적 결혼의 요인

- **원가족의 가족환경** : 부모가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경우 자녀도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 **결혼연령** : 결혼연령이 낮은 경우 부부역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결혼 전 교제기간** : 교제기간이 길면 상대가 배우자로 적절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 **부부의 성격** :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진 배우자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좋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남성이 선호하는 결혼 상대 성격		여성이 선호하는 결혼 상대 성격	
1위	배려심 있는 (17%)	1위	배려심 있는 (23%)
2위	이해심 있는 (16%)	2위	자상한 (14%)
3위	애교 있는 (9%)	3위	이해심 있는 (10%)
4위	착한 (8%)	4위	가정적인 (9%)
5위	순종적인 (7%)	5위	책임감 있는 (8%)
기타	다정한, 헌신적인, 성실한, 부지런한 등	기타	성실한, 신뢰할 수 있는, 유머있는, 겸손한 등





## Tips.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

요즘과 같이 이혼이 많고 부부간 갈등이 많은 시대에서는 오래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지혜가 필요하다. Lauer와 Lauer(1985)는 15년 이상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351쌍을 대상으로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우정

“내 남편(아내)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나는 내 남편(아내)를 한 인간으로 좋아한다.”

### 2) 구속(헌신)

“결혼은 원래 희생이 필요하다.” /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도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 / “한번 결혼하면 미우나 고우나 사는 것이다.”

### 3) 유사성

“우리의 목표는 같다.” /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비슷하다.”

### 4) 긍정적 감정

“내 남편(아내)은 재미있다.” / “우리는 함께 웃는 적이 많다.”

나는 내 남편(아내)이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 / “우리는 성생활에 만족한다.”



## 5. 부부관계와 의사소통

---

---

부부는 가장 친밀하지만 큰 상처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사이이며, 서로 의지가 되는 사이이지만 상대방의 영역에 자연스럽게 관여하므로 갈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이이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절실하다.

### 1) 의사소통의 걸림돌

#### ① 성장배경의 차이

부부는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사소통 규칙을 가질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할 수 있다.

#### ② 성 역할 고정관념의 차이

성 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남편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반박하는데 비해 아내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 ③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직접적 의사소통을 선호하지만 아내는 간접적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가령,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을 때 “우리 영화를 보러 가요” 대신 “지금 좋은 영화 하던데”라고 표현한다.

#### ④ 개념공유의 실패

서로 같은 개념을 공유할 때 대화가 순조로운데 나가서 외식하자고 할 때도 남편은 “가까운 중국집”, 아내는 “멋진 호텔 레스토랑”을 기대하면 의사소통이 어렵다.

#### ⑤ 인지적 왜곡

인지적 왜곡으로 인해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가령, 시댁을 다음에 가자는 아내의 말을 시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선택적 지각), 저렴하게 나온 명품 백을 산 아내를 명품백만 좋아하는 여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지나친 일반화)이 그 예이다.

#### ⑥ 방어적 태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저의가 있는 것으로 방어적으로 받아들인다.

#### ⑦ 부족한 대인기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하지 못할 수 있다. 가령, 너무 산만하게 말을 하거나 경청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 2) 부부간의 성공적 대화

-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한다.**

부부가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게 되면 상호이해의 수준이 높아져 결혼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

-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므로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거나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

-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메시지”를 통해 솔직하게 전달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돌려 말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화를 어렵게 하고 부부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나-메시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추측하지 말고 확인한다.**

분명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을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6. 부부간 갈등

부부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피할 수 없으며 좋은 부부관계는 갈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때 가능하다.

### 1) 갈등의 원인

- **부부중심 가족구조**

부부관계가 가족구조의 중심이 되고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데 부부중심 가족구조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완충역할을 하는 가족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적응문제**

신혼 때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문제, 결혼생활이 익숙해지면 자녀의 공부나 경제적 성취 문제, 중년기가 되면 자녀의 결혼과 노후준비 문제 등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적응문제가 발생하며 이것이 갈등을 유발한다.

- **가족 간의 경계 침범**

미누친(Minuchin, 1974)에 따르면 가족에는 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형제자매 체계가 존재하는데 이 체계 간의 경계가 분명하고 융통성이 있으면 건강한 가족이 되지만 체계를 침범하면 갈등이 발생한다. 가령, 시댁이나 친정 어른이 부부체계에 관여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2) 갈등대처 스타일

- 갈등 자체보다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갈등 후의 결과가 달라진다. 즉, 대화를 통해 갈등을 잘 다루다 보면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불만도 줄어들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 Thomas(1976): 대인 갈등을 대처하는 스타일을 자기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독단성 차원과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협력성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것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의 갈등 대처 스타일을 구분하였다.
- **경쟁적인 사람**은 독단성이 높고 협력성이 낮아 자신의 욕구나 목적에만 관심을 가진다.
- **회피적인 사람**은 독단성과 협력성이 모두 낮아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하거나 상대방과의 접촉이나 갈등상황을 회피하려 한다.
- **타협적인 사람**은 독단성과 협력성이 중간 정도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나 목적에 관심을 보이고 협상이나 양보를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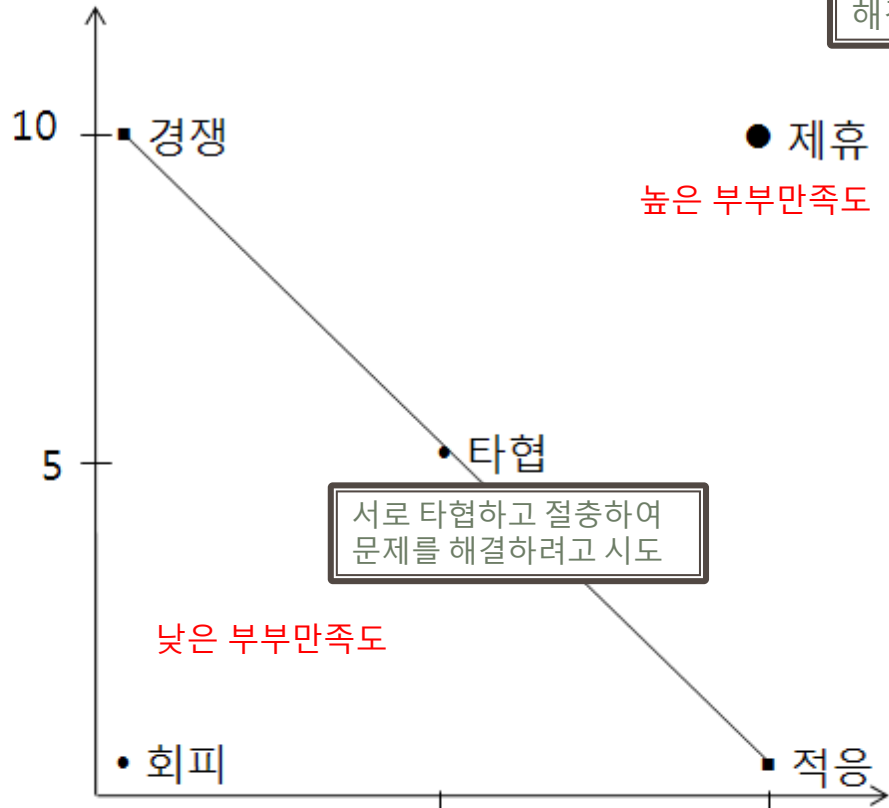
- **적응적인 사람**은 독단성이 낮고 협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욕구는 충족시키고 자신의 욕구는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 **제휴적인 사람**은 독단성과 협력성이 모두 높으며 서로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적이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 타협, 제휴 같은 문제해결적 갈등대처 스타일을 가진 부부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데 비해 경쟁, 회피, 적응 같은 부적응적 갈등대처 스타일을 가진 부부의 만족도는 낮았다.



경쟁하고 대립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

협동하고 상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독단적 차원  
(자기자신에 대한 관심)



높은 부부만족도

낮은 부부만족도

서로 타협하고 절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보류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

협력적 차원  
(타인에 대한 관심)



### 3) 갈등의 해결

- **갈등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정체성이 아닌 행동 자체 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

부부싸움이 격해지면 배우자의 인간성이나 집안을 들먹이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부싸움도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과 “가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의미이다.

-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말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 수용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 부부싸움은 평소에 가졌던 불만을 전달하고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예> 평소에 저녁을 같이 먹지 않는 부부는 부부싸움을 통해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나-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원하는 행동을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 4)이혼

핵가족화, 부부중심 수평적 가족구조, 여성의 경제활동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부역할에 대한 전통적 기대가 변화되지 않음에 따라 갈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 (1) 이혼의 원인

-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과거에는 결혼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어려웠는데 비해 현재에는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보편화되었다.
- **이혼에 대한 사회통념의 변화** :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여성이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나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약화되었다.
- **남녀의 성 역할 변화** :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여성도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부간에는 갈등이 커지게 된다.
- **법제도의 변화** : 여성에게 불리했던 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에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2) 이혼의 영향

-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이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독립적인 여성보다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던 여성일수록 자신만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기 힘들어 한다. 또한 이혼 후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양육을 해야 할 경우 더 심각해질 수 있다.
-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 이혼한 남성은 가사일이나 자녀양육 같이 여성에게 도움을 받았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가족법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 또는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남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성적 욕구의 해결도 이혼 후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이혼으로 인해 가족의 연대감이 깨지면 자녀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적응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성적 동일시 대상의 상실로 성격이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편부모 가족의 자녀가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은 편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

---